

장흥 친환경 해조류 올 작황 최대 풍작 예고

무산 김양식 선포 4년째...생장 여건 갈수록 좋아져

김·매생이 생산량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할 듯

장흥군에서 무산(無酸) 김 양식을 선포한 지 4년째를 맞는 올해 친환경 해조류 작황이 최대 풍작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장흥군은 “김, 미역, 매생이 등의 친환경 해조류 생산 시기에 여장을 관찰한 결과 2013년산 해조류의 생육 상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올해 해조류 생산량과 소득이 ▲무산김 460만 송(1송=100장) 160억원 ▲매생이 750t 50억원 ▲미역 3만t 4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평균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친환경 해조류가 예년보다 풍작을 유지

한 것은 적정수온 등 바다 여건이 좋은 탓도 있지만, 지난 4년간 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해조류 성장 여건이 예전보다 나아졌기 때문으로 군은 풀이하고 있다. 특히 1ha당 시설량을 전년보다 14% 줄여 조류 소용돌이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양염류의 풍부한 공급 등 생육상황이 좋아진 점도 작용했다.

장흥의 친환경 해조류는 식물성 고단백 건강식품으로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다. 또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성인병 예방과 숙취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 2011년 무산김과 매



장흥군에서 무산(無酸) 김 양식을 선포한 지 4년째를 맞는 올해 김은 물론 매생이와 미역 등 친환경 해조류 작황이 최대 풍작을 이뤘다. 사진은 매생이를 채취하고 있는 장흥 어민들. (장흥군 제공)

생이를 각각 지리적 표시제 품목으로 등록했고, 친환경수산물 인증과 미국 농무성(USDA) 인증 등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무산 김과 매생이는

올해도 좋은 가격으로 꾸준히 판매되고 있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과 지역경제의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 득량만 해역을 친

환경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선진 친환경농 벤치마킹 해외연수

주민·공무원 등 28명 18일부터 일본지역 순방

유기농산물 생산·유통, 농산물직판장 등 견학

강진군 농민과 공무원 28명이 선진 친환경농업현장 벤치마킹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지역을 방문한다.

강진군은 12일 “지난 2011년 전라남도친환경농업 대상 수상해 부상으로 지급된 3억원의 사업비 중 일부를 농가 교육에 집중 지원하기로 해 저비용친환경농업 교육과 선진 외국연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임대농기계 구입, 토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번 방문지는 AT센터 일본사무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에게 의뢰해 지방현의 유기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업체인 (주)대지를 지키는 사람들, 도쿄도 일본최대 청과 화훼도매시장인 오타도매시장, 시즈오카현의 JA농협 등으로 정했다.

또 삿포로시의 사토란드 센터와 오모토리 공원, 일본 북부의 유통체계를 견학하는 삿포로시의 우토나이 미치노에기 농산물 직판장 등도 포함됐다.

군은 연수 기간동안 각 분야별로 선진 농업시스템 및 정보기술은 물론 마인드도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선진지 방문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실시한 저비용친환경농업 교육(하동군 소재 자연을 담은 사람들)을 이수했으며, 경지면적 30% 이상을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h@

장성군 토지가격 조사

16만7000필지 대상

장성군이 토지관련 과세 및 각종 재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가격 조사가 나왔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조사되는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도로, 하천, 구개 등 16만7000필지를 대상으로 토지가격 조사가 착수했다.

오는 22일까지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마무리한 뒤 4월11일까지 지가 산정 및 검증, 5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노인일자리 참가자 모집

화순군, 오늘 하니움센터

화순군이 13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노인일자리 공동모집대회를 갖고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올해 모두 18억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900여 개를 마련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공익형 사업인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451명, 교육형인 노노감사 파견사업과 보육교사 도우미사업 등 160명, 복지형인 꿈나무아동지킴이와 소외계층 돌봄 지원사업 등 295명이다. 참여 여건의 근로조건은 1일 3~4시간, 주3일 근무로 임금은 매달 20만원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시, 초중고 지원정책 ‘결실’

관내 중학교 작년 순유입으로 전환

초등도 타지역 전출 현저하게 둔화

지난해 나주시 초·중·고 학생 전출자를 전입자가 처음으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30~40대 인구 유출로 인해 매년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초·중·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는 최근 지속적인 학생 지원책의 효과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12일 나주시가 집계한 ‘초·중·고 학생 변동 상황 및 대학진학 현황’자료에 따르면 관내 중학생이 2008년 40명의 순유출에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명의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초등학생도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228명과 248명이 나주를 빠져나갔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159명과 165명으로, 그 수가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요대학 합격자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46명으로 44%나 대폭 증가하는 등 나주 교육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력 증진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2011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자매결연도시인 웨네치시의 벨리대학교 4주간 여름방학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난해 겨울방학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루터란대학교에서 지난 1월 11일부터 2월8일까지 초·중·고 학생 20명에 대한 어학연수를 실시하기도 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초·중·고 학생의 타지역 유출 둔화와 중·고 학생 전입 증가세로의 전환, 수도권 주요 대학의 진학자 증가 등은 교육지원책 뿐만 아니라 일자리 만들기 와 귀농 지원 등의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scn@



나주시의 지원으로 지난 1월11일부터 2월8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루터란대학교에서 실시한 겨울방학 첫 어학연수에서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과 함께 토론수업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전북

전주 시내버스 문제점 개선 시민들이 직접 해결 나선다

대중교통협의회 시민위, 총회 열고 본격 활동 개시

반복되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이용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팔을 걷었다.

지난해 발족한 전주 대중교통협의회 시내버스 시민위원회가 19일 전주 시청에서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총회에서는 시민위원회를 이끌어갈 대표와 집행부를 선출하고 올해 중점 활동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위원회는 향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주지역 시내버스의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민위는 지난해 6차례의 포럼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보조금 문제 등에 대안을 모색해 왔다. 이들은 특히 전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5개 버스업체는 노선을 공동 배차하면서 수익이 보장된 도심지역에 노

선이 과다 집중돼 차량 정체를 과속, 지연 운행, 운전자의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 역시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이중 지원하는 가 하면 정산 절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느슨하게 대처한 것도 화를 키웠다.

전주에서는 지난 2011년 무려 146일만 시내버스가 멈췄으며, 지난해에도 4차례나 파업하는 등 시내버스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위원회는 “전주시가 노선 결정권을 가지고 지·간선제로 노선을 개편해 과당 경쟁을 없애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몇 차례 파업을 거친 만큼 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안정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전북

지리산둘레길 명품화...관광객 30만 유치

남원시, 올해 마을 민박·걷기행사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지리산둘레길이 올해 방문객 30만 명을 목표로 찾아오고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둘레길로 거듭난다.

남원시는 12일 “명품둘레길 조성을 위해 올해 마을민박과 연계한 계절별 지리산둘레길 걷기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리산둘레길 이야기꾼을 통해 남원구간만의 차별화된 아이টে옴으로 탐방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방침이다.

또 지리산둘레길 주변 민박마을과 이야기꾼을 연계한 힐링캠프 ‘마을열

기, 알기, 나누기’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해 옛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주5일 수업과 수학여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걷기 좋은 계절인 4월과 10월, 주말에 집중되는 방문객을 비수기에도 유치하기 위해 문화·예술인과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숨겨진 명인·명소를 찾아라’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지리산에서 만나는 치유음식 ‘자연의 밥상’은 탐방객들이 청정지리산에서 생산된 음식을 맛보고 건강을

챙기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호응을 받았던 ‘유명인과 함께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행사는 올해도 계속 진행된다.

홍보와 시설물 정비도 강화한다. 파워블로거·여행작가 초청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코레일 등 정기적인 여행상품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친다.

시는 올해 2600만원을 들여 이점포와 시설을 정비하고, 개방화장실도 확충해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양육비 480만원

군, 지원사업 대폭 확충

순창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지원사업을 펼친다.

순창군은 12일 “모자보건지원과 관련 5억2300만원을 투입,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군은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으로 3억5800만원을 확보해 부모 모두 순창에 주소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첫째아 및 둘째아

에게는 50만원의 축하금과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셋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의 축하금과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또 임신 후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에 한해 출산제와 엽산제 지원에도 3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매달 평균소득 50% 이하인 가정에는 1767만원의 예산을 투입, 2주에서부터 4주간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600년 느티나무 당산제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초사흘날 당산제를 지내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281호인 ‘신기마을 느티나무 당산제’가 12일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 신기마을에서 열렸다. 신기마을 느티나무는 수령 600년으로 추정되며, (남원시 제공)

단신

남원 ‘기부천사’ 4년째 300만원씩 기부

올해로 4년째 남원시 산동면에 300만원씩 기부하고 있는 ‘기부천사’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12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산동면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현금 300만원을 산동면사무소에 전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익명의 기부천사는 전사의 기부는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200만원에 이른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산동면은 익명의 기부자의 뜻을 받아 백미 20kg 60포를 구입해 60세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또 산동면 소재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백미 10kg 40포, 이름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산동면의 기부천사 2명이 백미 10kg 50포, 남원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이 세대당 굴1상자, 라면1박스, 김1박스, 백미10kg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전주시, 폐지 수거노인 210명에 야광안전조끼 전달

전주시는 12일 시청 강당에서 관내 폐지 수거노인 210명에게 야광 안전조끼와 쌀 10kg 1포씩을 전달하고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이나 새벽시간에 폐지를 줍던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전주시가 마련한 대책

이다. 시는 새벽과 야간시간대에 폐지 수거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인 210명을 찾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500만원을 후원받아 야광안전조끼를 제작했다. 또 전주시 약사회에서 쌀 10kg 210포(500만원 상당)를 후원하여 전달했다. /전주=김철수기자 knews@

군산시, 미장지구 체비지 146필지 매각

군산시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체비지 매각을 실시한다. 이번 매각되는 체비지는 공동주택용지 1필지, 근린생활용지 12필지, 상업용지 31필지, 단독주택용지 100필지, 준주거용지 2필지, 총 146필지이며 일반공개경쟁입찰(온비드 전자입찰방식)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기간은 2월13일 오전 10시부터 3월5일 오후 4시까지로 입찰참가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등록 후 지정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을 납부하면 입찰이 가능하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기초수급자 등 소득·재산 실태조사

정읍시는 12일 “내달 31일까지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일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자활·빈민담당경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다. /정읍=박기범기자 parkks@

시는 이 기간 국민연금 근로소득 및 국세청의 사업소득자료와 재산세 관련 정보 등 50여종의 공적자료를 근거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결과 2월 급여부터 변동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읍=박기범기자 parkks@